

유가 오르면 광주 소비자물가도 ‘깡충’

한은 보고서…석유류 가중치 대구 이어 광역시 중 2위

달걀·돼지고기·소고기 변동성 1위…월세 상승률도 높아

광주지역 소비자물가가 국제유가와 축산물가격에 크게 좌우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기획금융팀 배석진 조사는 11일 발표한 ‘최근 광주지역 소비자물가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16년 하반기에 국제유가가 반등하면서 광주지역 휘발유 및 경유 판매가격도 상승해 소비자물가 오름세 확대로 연결됐다고 분석했다.

광주지역 소비자물가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 국제유가와 축산물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변동성이 큰 편이며 가중치

가 큰 임차료의 상승률도 높은 수준이다. 운송연료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가격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에 대한 석유류 품목의 가중치는 54.5(1000분비 기준)로 광역시 중에서 대구(56.2)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자동차 이용이 많아 휘발유, LPG 등 자동차연료에 대한 가중치가 큰 편이었는데 실제 가중치가 휘발유 30.2, 경유 17.9 자동차LPG가 4.8로 광역시 중 두번째로 높았다.

광주지역 대중교통 이용도 타 광역시

대비 낮아 휘발유 등 운송연료가격 상승에 더 민감하며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지역 월 평균 10만원 이상 대중교통비 지출 비중이 15.4%로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다.

지역 축산물가격 역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변동성을 나타내며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품목별로는 달걀가격 변동성이 가장 높았으며 돼지고기와 소고기 순으로 변동성이 컸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 살충제 계란 파동과 구제역 등 외부충격이 발생했을 경우 타 지역에 비해 해당 품목의 가격 오름세가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높은 변동성은 지역 축산물 도매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 낮고 광주지역은 이들 산지와 인접해 있어 소매가격도

타 지역에 비해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월세가격의 상승세 확대도 소비자물가 상승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 전월세 전환율은 저금리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하다 지난 3월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했는데, 이에 따라 월세의 소비자물가에 대한 기여도가 대폭 상승한 것이다.

배석진 조사는 “광주지역 소비자물가 오름세는 수요측 요인보다는 공급측 요인의 압력이 크게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며 “향후에는 석유류 및 농축산물 오름세 둔화 등으로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은 완화되는 반면 경기회복 가시화로 수요측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71.49 (+7.49) ↓ 금리 (국고채 3년) 2.09% (-0.01)

↑ 코스닥 764.09 (+20.03) ↓ 환율 (USD) 1092.30원 (-1.00)

호남권 토지보상금 3120억 풀린다

여수 등 7개 사업지구…전국 92곳 16조원

내년 호남권에 3120억원을 포함 전국에서 총 16조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11일 부동산개발정보 포털 자존에 따르면 내년 전국에서 토지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산업단지, 공공주택지구, 경제자유구역, 역사관광개발사업, 뉴스테이 등 92곳으로 토지보상금 규모는 모두 14조 9200억원이다. 이는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토지보상금이 제외된 것이다.

매년 정부가 집행하는 SOC 토지보상금 규모가 통상 1조 5000억원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내년 전국에서 풀리는 전체 보상금 규모는 16조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사업지구별로 보면 산업단지가 53곳, 7조3969억원으로 전체 보상금의 절반에 육박한다. 이어 ▲공공주택지구 7곳, 2조3267억원 ▲도시개발사업 11곳, 1조7893억원 ▲경제자유구역 6곳, 1조1906

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지구 총면적은 73.54㎢로 여의도 면적(8.4㎢)의 8.75배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6개 지구, 8조8334억원 규모로 내년 전체 보상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라권에서는 여수의 소재지구 택지개발사업이 9월부터 840억원 규모의 토지보상을 시작하는 것을 비롯해 7개 사업지구에서 모두 3120억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공공개발이 본격화돼 보상이 차질 없이 이뤄지면 일부 개발 유망지역은 보상금이 인근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내년 4월부터 청약조정지역 내 양도소득세가 증과되는 등 주택시장의 규제 정책으로 토지보상금이 주로 주택보다는 토지·상가 등에 몰릴 것으로 전망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청약시장 ‘중형 평형대’ 전성시대

84㎡ 1~7위 휩쓸어…매매가 상승률도 강세

올해 청약 시장에서도 ‘중형 평형’인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여전히 큰 인기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올해 1월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1순위 청약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상위 10위 중 7위까지가 전용면적 84㎡로 조사됐다.

가장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단지는 ‘부산 구서역 두산위브포세이돈’ 전용 84㎡로 무려 9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부산 수영구 민락동 ‘e편한세상 2 오션테라스E3’ 전용 84㎡가 817.5대

1, 대구 수성구 ‘대구 범여네거리 서한 이다움’ 전용 84㎡가 618대 1, 대구 ‘오펜라 트루엘 시민의숲’ 전용 84㎡가 53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매매가 상승률도 중형이 강세였다. 국민은행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10월 서울 규모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에서 중형(62.81㎡~95.86㎡미만)이 0.37%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소형(62.81㎡ 미만)은 0.30%, 대형(95.86㎡ 이상)은 0.23% 올랐다. 작년 말 대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도 중형이 3.06%로 가장 많이 올랐다.

연합뉴스

전세대출도 금리 상승…11월 2.96%

주택금융공사는 11월 공사 보증으로 은행들이 취급한 전세자금대출의 가중평균금리가 2.96%로 10월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고 11일 밝혔다.

주금공 보증 전세대출의 가중평균금리는 10월에도 전월 대비 0.01%포인트 올랐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미리 반영한 시장금리 상승세가 영향을 미

쳐 두 달 연속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은행권에서 전세대출 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우리은행(2.90%)이었다. 이어 하나은행(2.91%), 신한은행(2.94%) 등 순이다.

각 은행 전세대출 가중평균금리는 공사 홈페이지(http://www.hf.go.kr)를 통해 공시된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그룹 자회사간 내부거래 속속 중단

채권단, 통근버스 운영사 변경·전산업무도 계약종료 협의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결별 후 홀로서기에 나선 금호타이어가 금호그룹 자회사들과 맺어온 계약을 속속 중단해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1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채권단 방침에 따라 기존 금호타이어와 금호그룹 자회사 간 유지돼 오던 내부거래가 일부 정리 수순에 돌입했다.

채권단의 이 같은 움직임은 독립경영

체제로 전환된 금호타이어의 경영 합리화 조치로 이해되지만 일각에서는 매각 과정에서 박상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빚어진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와 금호그룹 자회사 간 유지돼 온 내부거래 중 가장 먼저 통근버스 운영사를 변경할 방침이다.

기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곡성공장

임직원 통근버스를 운영해온 ‘케이지’와 계약기간이 오는 20일로 만료되는 가운데 경기지역 업체와 신규 계약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통근버스 신규 운영사로 경기지역 업체를 선정한 데는 광주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수송 능력을 갖춘 업체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금호타이어 전산업무를 담당해온 ‘아시아나IDT’와도 계약관계 종료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타이어 물

류를 담당해 온 수도권업체 ‘티엘’과도 계약 변경을 앞두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계약관계 변경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존 근무인력들의 고용승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존 통근버스 운전사들의 고용승계 문제를 신규업체와 협의 중이다. 아시아나IDT 전산직 직원들의 경우도 이직을 희망하는 경우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기존 금호그룹 문화재단 산하 자회사 몇 곳을 제외하고는 추가 계약변경은 검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에서 우려하는 협력업체 변경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볼로(YOLO)이오~쇼~

경품평평!! 사은행사

1등

300만원 디지털 상품권 (1명)

2등

LG 전기 건조기 (1명)

3등

갤럭시북 태블릿PC (1명)

4등

샤오미 미밴드2 (100명)

※ 상품이미지 사진은 실제 상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부담입니다.

가인 기념품!!

보조배터리

손톱 깎이 세트

모바일 쿠폰

보온보냉병

상품구분	자격기준	기념품 및 경품권 지급대상
체크카드	최초 신규발급 이용자	당월 5만원 이상 이용시
대출	신규실행 고객 (공제마련 및 예적금발행내 제외)	실행시
정기예금 및 적금	신규가입 고객	당일 1건에 한함
출자 적립	10만원 이상 입금시	최초 1회
생명공제	신규가입 고객	중복 지급 가능
손해공제	신규가입 고객	
급여/가맹점	신규연결 고객	
스마트뱅킹	신규가입 고객	가입시
스마트알림	신규가입 고객	
상상뱅크	신규가입 고객	
18년 1월말 상품별 유지자 '경품행사' 추천대상		

행사기간 | 2017년 10월 16일(월) ~ 12월 29일(금)

경품추첨 | 2018년 2월 예정(18년도 정기총회)